

우리 박물관에서 ‘어깨동무’ 할래?

국립전주박물관,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총 10회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어깨동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물관 접근성이 낮고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부터 초등, 중등, 전공(성인)까지 특수학급(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전주박물관 특화 콘텐츠를 주제로 총 3종의 학교급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과 중등 학급은 ‘문방사우를 찾아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문방사우(종이, 붓, 먹, 벼루)의 개념을 알고 놀이를 통해 서예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고등과 전공(성인)은 ‘우리 마을 보물찾기’를 진행한다. 상설전시실에서 우리 지역의 보

물을 찾아 스탬프를 찍고 퀴즈미션을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공작팔쥐와 어깨동무’는 올해 박물관에서 새롭게 개발한 놀이형 활동 프로그램으로, 유아와 초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북지역 설화인 ‘공작팔쥐’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5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교육일 한 달 전부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https://jeon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어깨동무' 프로그램 포스터

‘전북 관광굿즈 공모전’ 일반인 참여 전시 심사

전북문화관광재단, 23~24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서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2025 전북 관광굿즈 공모전’의 일반인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22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일반인 심사는 도민이 직접 공모전 출품작을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심사와 더불어 심사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균형 잡힌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반인 심사는 23~24일 이틀간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오프라인 전시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을 방문한 도민 누구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들은 전북의 정체성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관광굿즈로 구성, 일반인 심사 참가자는 현장에서 종이투표를 통해 1인 3작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또한 민족도 조사까지 완료한 도민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일반인 평가와 전문가 평가 점수와 합산되어 최종 수상작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향후 상품화 지원, 판업스토어 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과 기회를 제공받는다. 안중현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장은 “지역민의 시각에서 우수 관광굿즈를 선발하는 과정에 도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www.jbct.or.kr) 및 관광기업지원센터(tourbiz.jbct.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063-230-421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전문성·실효성 강화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22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1·2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14개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전담하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총 3차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컨설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

는 데 중점을 뒀다. 1차 교육은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성인지 통계의 이해 및 활용’을 주제로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 및 분석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2차 교육은 ‘농촌분야 젠더 이슈 및 컨설팅 실습’을 주제로 농업·농촌 정책 내 젠더 불균형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사례를 분석하

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한편 3차 교육은 ‘성인지 예·결산 이해 및 컨설팅 실습’을 내용으로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유은경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컨설턴트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성주류화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운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지혜 ‘홍보가’ 완창 무대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 6월 7일 ‘강도근제 이난초바디 홍보가’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소리꾼 전지혜의 홍보가 완창 무대를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2025 소리관·완창무대의 세 번째 순서로, 소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기획공연이다. 이날 선보일 ‘강도근제 이난초바디 홍보가’는 송홍록·송만갑·김정문·강도근·이난초로 이어지는 동편제 계보의 소리, 서사의 흐름과 장단의 조화가 뛰어나며, 홍보가 특유의 서정성과 극적 구성이 전반에 걸쳐 어우러지며, 완창 형식에서 예술적 완성도가 더욱 빛을 발한다. 전지혜는 전남도립국악단 삼임단원으로, 이난초 명창에게 전통 판소리를 사사하며 소리의 깊이를 다져왔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홍보가의 짜임새와 미학을 자신만의 소리로 펼쳐낼 예정으로, 고수는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조용안이 맡는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ramwon.gugak.go.kr), 카카오톡 채널



(국립민속국악원), 또는 전화(063-620-2329)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음악과, ‘봄밤 음악 향연’ 제45회 정기연주회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 김지환 교수 지휘 다채로운 협주곡·아리아 선사

전북대학교 음악과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45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연주회에는 김지환 교수가 지휘를 맡고, 전북대 음악과 재학생들이 협연자로 나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대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e단조 1악장’(협연: 장다희)으로 시작된다. 이어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아리아 ‘Hai già vinta la causa’(바리톤: 백승렬),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1악장’(바이올린: 이홍일), 벨리니 오페라 ‘카플레티와 몬테키’ 중 ‘Eccomi in lieta veta... Oh! quante volte’(소프라노: 오서은), 브루흐의 ‘로망스’(비올라: 이한비), 세쥬르네의 ‘바람바 협주곡 3악장’(마림바: 양민희) 등 다채로운 독주곡과 성악곡으로 꾸며진다. 특히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조두남의 ‘벚노래’와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도 함께 무대에 오르고, 마지막은 프로코피예프의 여작 ‘교향곡 제1번 Classical’로 장식된다. 강효정 학과장은 “전국별로 역량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



라며 “클래식 애호가와 지역민 모두에게 특별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